

변화의 중심에 선 현대 I&S 올해 1월 경영정보팀 분사

글 | 정윤희 편집장 unigood@paran.com

올해 1월 1일, 현대약품공업의 경영정보팀이 현대I&S(주)로 분사했다. 경영정보팀장이었던 김연규 대표를 만나 분사 배경과 앞으로 계획을 들어봤다.

“IT 분사의 목적은 대체적으로 효율적 경영과 공격적 사업확장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제약 회사도 IT 자회사가 많아요. 대웅제약의 인성IDS, 한미약품의 한미IT, 종근당의 한국하이네트, 중외제약의 중외정보기술, 보령제약의 비알네트콤 등입니다. 4~5년 후 모기업 의존율이 약 40% 미만이면 사업확장 개념으로 돌아섰다고 봐야죠. 우리도 작은 효율적 경영입니다. 위험을 분산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IT부서를 분사하게 됐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해라, 가능한 빨리

현대I&S의 분사 프로젝트는 2005년 9월부터 시작해 2006년 1월 1일까지 약 4개월 남짓 걸렸다. 현대I&S라는 사명은 인포메이션, 인프라, 솔루션, 전략 등 IT와 관련된 의미들이 함축된 사명이다.

“현대가 꼭 붙어야 되거든요. 제가 사명을 짓기 위해 검색해 본 결과 3천500개 회사에 현대가 붙어요. 10개 정도 리스트를 뽑았는데 전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발음하기 쉬운 장점을 살려 작명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약품에서 경영정보팀원들의 자긍심은 대단했다. 매년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사내조사에서 근무하고 싶은 부서

현대I&S(주) 김연규 대표
(사)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 제약산업회 수석 부회장

로 매년 1위를 기록할 정도였다. 분사로 인해 갑을관계로 바뀌는 상황을 팀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죽는다.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해라, 가능한 빨리.”

김연규 대표는 직원 한 명씩 붙잡고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IT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도태돼요. 우리는 다행히 변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IT 자체가 경영활동의 보조 수단이었잖아요. 이제는 중심에 서겠다. 이 말은 곧 자신을 버리고 주도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현대약품에서의 경영정보팀은 자긍심이 강한 팀이었어요. 업무 분장자(distributor) 역할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현대약품은 지난해 ERP를 구축했다.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IT부서의 분사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ERP를 전산부서에서 꼭 잡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예요. ERP는 현업이 와서 현업이 주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즉 현업이 오너십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한계가 있었어요. 현업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잘못이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깨어지는 아픔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한번 깨어지니까 다음부터 쉬워지더군요.”

결국엔 사람과 비용

김연규 대표는 분사한 제약회사의 벤치마킹은 한 군데도 빼놓지 않았고 컨설팅은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분사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김연규 대표는 분사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팀원들과 즉시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분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엔 사람과 비용이에요. 직원을 어떻게 설득하고 비전을 공유하는가에 달렸고, 우수인재가 환경으로 인해서 이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분사 전보다 일이 두 배 늘었어요. 사람도 예전보다 많이 만나고, 스케줄을 보면 저녁시간까지 뽁뽁해요. 단점도 있어요. 업무량이 1.5배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지요. 더 잘하라고 분사시켰는데 질이 떨어지면 모기업에서도 다른 업체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죠.”

김연규 대표는 지금까지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PM의 역할과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성공하는 프로젝트 사례를 보면 PM의 훌륭한 자질을 예상할 수 있고, 업무 소유욕이 강하거나 캐릭터가 강한 PM은 결국 실패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고 한다.

김연규 대표는 독서를 많이 한다. 그리고 보니 회의실에 책이 가득했다. 책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할 정도다. 선물도 책으로 한다.

“최근에 읽은 책 중 <배려>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현대&S는 현대약품의 IT 개발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김연규 대표는 올해는 모기업에 100% 의존하지만, 5년 안에 모기업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Users